

#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권혜자\*

## I. 머리말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서비스산업이 주목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이 주된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어떠한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02~2006년까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떤 유형의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 1. 자료

사업체의 고용변동은 보통 두 시점 사이에 나타난 고용변화로 측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시점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의 연도별 고용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청의 2002~2006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사업체의 고용변화는 2년 사이의 고용변화로 측정되는데, 2년 사이에는 새롭게 생성된 사업체가 존재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고용변동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사업체 생성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업체의 퇴출에 의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onestep1@keis.or.kr).

〈표 1〉 지속사업체 자료의 기초통계

(단위:천 개, 천 명, %)

	지속사업체수	원자료 대비 사업체비율	지속사업체 종사자수	원자료 대비 종사자비율	평균 종사자수
2002 ~ 2003	2,430	76.2	10,130	68.8	4.2
2003 ~ 2004	2,542	79.7	9,134	61.6	3.6
2004 ~ 2005	2,420	75.5	10,579	69.8	4.4
2005 ~ 2006	2,649	82.1	11,958	77.5	4.5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해 사라지는 일자리 소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년간 지속된 사업체 자료를 재구축하여 분석하는 한편(이하 지속사업체 자료), 2년 사이에 사업체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퇴출되어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이하 생성·퇴출사업체 자료). 이 자료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서 사업장 주소, 산업세세분류, 조직 및 사업체 형태, 창립연월일 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사업장에 식별 ID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2년간 지속사업체 자료를 요약해 보면(표 1 참조), 2006년 현재 사업체 관측치는 약 2,649천여 개로 원자료의 약 82.1%에 달하고, 총 종사자수는 약 11,958천여 명으로 원자료의 약 77.5%에 달한다.

## 2. 전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이 글에서 관심을 두는 일자리 변수들은 개별 사업체의 일자리 변수가 아니라, 기업 규모나 산업과 같은 부문별 일자리 변수들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에 속한 개별 사업체들의 일자리 창출량, 일자리 소멸량, 일자리 순증가량을 집계하여 계산한 총 일자리 창출률, 총 일자리 소멸률, 총 일자리 순증가율을 사용하였다.<sup>1)</sup>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 산업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전 산업의 일자리를 100개라고 할 때 연평균 4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개의 일자리가 소멸함으로써 연평균 3개의 순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두 해 동안의 사업체 생성과 소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두 해 동안 사업체 생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연평균 32.8이고, 사업체의 퇴출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29.2로 나타난다. 이처럼 사업체의 총 일자리

1)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일자리 변수의 정의는 Davis, Haltiwanger, Schuch(1996)가 사용했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분자는 개별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집계한 총 일자리 창출량, 총 일자리 소멸량, 총 일자리 순증가량이며, 분모는 모두 개별 사업체의 2년간 평균 종업원수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표 2> 연도별 총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2002~2006, 전 산업)

	전 산업			생성·퇴출사업체			지속사업체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2002~2003	43.4	41.0	2.4	33.8	29.8	3.9	9.6	11.1	-1.5
2003~2004	49.3	47.1	2.2	40.4	37.4	2.9	8.9	9.6	-0.7
2004~2005	43.9	39.9	4.0	32.8	28.3	4.5	11.1	11.6	-0.5
2005~2006	36.2	33.1	3.2	24.7	21.4	3.3	11.6	11.7	-0.1
연평균	43.1	40.2	3.0	32.8	29.2	3.6	10.3	11.0	-0.7

자료: 통계청(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창출과 소멸은 2년 사이에 문을 열거나 문을 닫은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에 의해서 대부분 설명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일자리 변동과 함께, 최소한 2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년간 지속사업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률은 연평균 10.3이지만 일자리 소멸률이 연평균 11.0으로 나타나고 있어, 순일자리 증가율은 연평균 -0.7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변동에서도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2002~2006년까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모두 100개라고 볼 때, 연평균 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6.4개의 일자리가 소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3.6개의 순일자리가 창출되었다(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2년간 생성·퇴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지속사업체로 한정해 보면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는 0.7개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순일자리도 -0.6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서비스산업에서만 순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유형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은 모두 음의 일자리 순증가율을 보였으며, 사회서비스업만이 양의 증가율을 보였다.<sup>2)</sup>

2) 서비스산업의 유형은 8차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생산자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으로 구성되며, 유통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으로 구성되고, 개인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 구성되고,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3〉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2002~2006년 연평균)

	전 체			생성·퇴출사업체			지속사업체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제조업	49.8	49.2	0.6	42.1	40.9	1.2	7.6	8.2	-0.6
서비스업 전체	40.0	36.4	3.6	29.2	24.9	4.3	10.8	11.5	-0.7
생산자서비스	53.1	48.2	4.9	41.6	36.4	5.2	11.5	11.8	-0.3
유통서비스	39.4	38.9	0.6	30.0	27.9	2.1	9.5	11.0	-1.5
개인서비스	40.0	34.6	5.3	27.4	20.3	7.1	12.6	14.3	-1.7
사회서비스	29.2	24.4	4.8	19.5	16.1	3.4	9.7	8.3	1.3

자료: 통계청(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이를 일자리 변동량으로 살펴보면(표 4 참조), 서비스산업에서는 연평균 387천 명의 일자리가 순증가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19천 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년간 지속사업체에 한정해 보면, 서비스산업에서는 연평균 80천 명의 순일자리가 감소함으로써 제조업의 -22천 명에 비해 순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에 비해 크지만, 주로 사업체의 생성과 퇴출에 따른 증가량이고 지속사업체에서는 일자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회서비스업에서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일자리 변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량이 소멸량을 압도함으로써 양의 일자리 순증가를 보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업종별로 볼 때 일자리 순증가량이 가장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지만(표 5 참조), 지속사업체에 한정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일자리 창출은 음의 값을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생성에 따른 일

〈표 4〉 서비스산업의 총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2002~2006년 연평균)

(단위: 천 명)

	전 체			생성·퇴출사업체			지속사업체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제조업	1,691	1,672	19	1,431	1,390	41	260	282	-22
서비스업 전체	4,312	3,925	387	3,149	2,683	466	1,162	1,242	-80
생산자서비스	1,071	970	101	837	731	106	233	239	-5
유통서비스	1,401	1,380	21	1,064	990	74	337	390	-54
개인서비스	1,182	1,025	158	809	600	209	373	425	-51
사회서비스	658	550	108	439	362	77	218	188	31

자료: 통계청(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5> 서비스산업의 총 일자리 창출과 소멸(2002~2006년 연평균)

(단위: 천 명)

	전 체			생성·퇴출사업체			지속사업체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창출량	소멸량	순증가량
도매 및 소매업	1,047	1,043	4	785	744	41	261	298	-37
운수업	297	278	19	235	202	33	62	76	-14
통신업	57	59	-2	43	43	0	14	16	-2
금융 및 보험업	282	286	-4	221	215	6	61	71	-10
부동산 및 임대업	199	178	21	160	129	31	39	49	-10
사업서비스업	590	507	84	457	388	69	133	119	14
공공행정 및 국방	102	93	9	41	34	7	61	59	2
교육서비스업	377	322	55	266	229	37	111	93	18
보건 및 사회복지	179	135	44	132	99	33	47	36	11
숙박 및 음식점	724	603	121	477	322	155	247	281	-34
오락문화 및 운동	167	150	17	128	107	21	39	43	-4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	291	272	19	204	171	33	87	101	-14

자료: 통계청(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자리 순증가가 높게 나타나지만, 지속사업체는 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생성·퇴출사업체와 지속사업체 모두 양의 일자리 순증가량을 보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는 모두 사회서비스와 일부 생산자서비스에 속하는 업종들이다.

### III.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질

이 장에서는 2년 사이에 생성되거나 퇴출된 사업체를 제외하고 지속사업체에 한정하여 일자리 창출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유형별로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순증가율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산업 유형별로 어떤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유통서비

스 부문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은 반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일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sup>3)</sup> 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도 높지만 동시에 일자리 소멸도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일자리 순증가율은 대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일자리 순증가율이 양의 값을 갖는 업종에 한정하여 살펴보면(표 7 참조), 대체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표 6〉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순증가율(2005~2006)

(단위: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1~9인	-1.2	-0.2	-3.2	-0.6
10~29인	-0.5	0.0	-0.6	0.2
30~99인	0.9	0.2	-2.5	1.5
100~299인	4.0	-3.9	-2.1	0.5
300~499인	7.8	-4.0	5.5	4.1
500인 이상	14.6	-11.0	-0.6	5.9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표 7〉 주요업종의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순증가율(2005~2006)

(단위: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업
1~9인	-2.9	-3.3	-1.0	2.3	6.5
10~29인	1.8	2.1	0.5	1.1	2.8
30~99인	8.5	0.8	1.1	0.3	-1.0
100~299인	18.8	0.2	3.2	12.0	15.4
300~499인	35.5	6.4	-20.7	13.0	
500인 이상	42.3	8.1	8.7	14.6	

주: 사회복지업은 300인 이상의 자료가 없음.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3) Davis, Haltiwanger, Schuch(1996)은 대기업, 업력(業歷)이 오래된 기업, 고부가가치, 고설비, 고임금 기업들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운영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지속사업체에 한정해 볼 때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또한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2.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에서 늘어난 순일자리 증가량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해 보면, 창출된 일자리가 어떤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순증가량은 연평균 31천 명인데, 여기에서는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통서비스 부문과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일자리 순증가량이 각각 연평균 -54천 명, -51천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가 모두 상용종사자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늘어난 일자리에서는 상용종사자와 임시·일일종사자가 동시에 증가했지만, 감소한 자리에서는 상용종사자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 순증가량이 음의 값을 보인 반면, 양의 성장을 보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으로 나타난다. 일자리 순증가량이 음의 값을 보인 업종에서는 대부분 상용종사자의 대폭 감소가 있었으며, 동시에 임시·일일종사자나 무급종사자 등의 감소가 수반되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에서 상용종사자의 대폭 감소가 있었다.

일자리가 순증가한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는 주로 상용종사자를 중심으로 순일자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상용종사자보다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증가에 의해 일자리가 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보건 및 사회복지

<표 8> 주요 산업별 일자리 순증가량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2002~2006년 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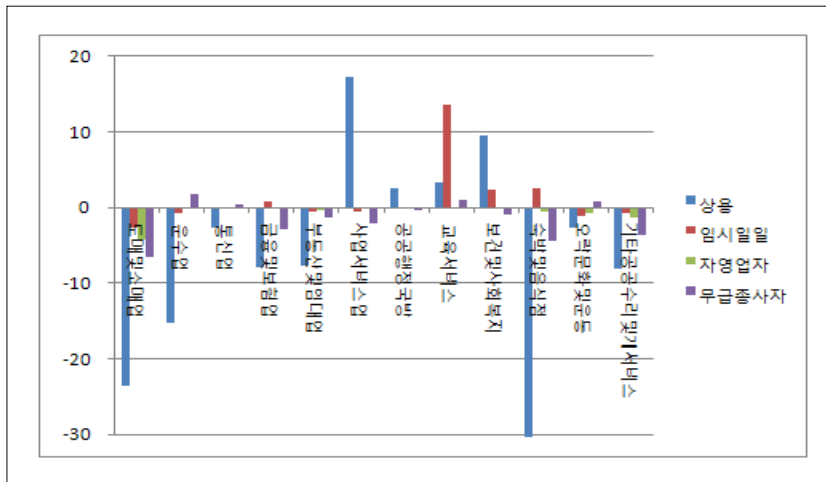
(단위: 천 개)

	일자리 순증가량	상용	임시일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	무급종사자
유통서비스	-54	-42	-3	-4	-4
생산자서비스	-5	2	0	-1	-6
사회서비스	31	15	16	0	0
개인서비스	-51	-42	1	-3	-7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그림 1]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량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2002~2006)

(단위: 천 개)



주: 자영업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임.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업에서는 상용종사자의 증가가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증가를 압도하면서 일자리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표 9 참조),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주로 상용종사자를 중심으로 순일자리가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상용종사자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임시·일일종사자와 무급종사자의 감소가 수반되었다. 이외는 달리 연구개발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상

<표 9> 일자리가 순증가한 업종의 종사상 지위별 증감(2002~2006년 연평균)

(단위: 개)

업종	순증가량	상용	임시일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무급종사자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4,862	4,976	-14	3	-103
연구개발업	868	511	388	2	-3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3	624	55	-182	-174
사업지원서비스업	8,369	11,112	-896	-17	-1,832
교육서비스업	17,977	3,416	13,580	-64	1,055
보건업	7,017	5,392	1,834	7	-216
사회복지사업	3,776	4,078	473	-69	-705

자료: 사업체 기초통계 지속사업체 자료.



용종사자와 함께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임시 및 일일종사자와 무급종사자의 대폭 증가가 상용종사자의 증가분을 압도하고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속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 임금수준, 노동복지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량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수량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된 적지 않은 일자리가 단순 미숙련 중심의 고용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 IV. 맺음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사업체의 빈번한 생성과 퇴출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제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기간의 일자리 순증가율을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음의 성장, 생산자서비스업에서는 불변, 사회서비스업에서만 양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업종마다 다르다. 대체로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는 일자리의 질은 괜찮은 편이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적은 반면,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늘어난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순증가량으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업, 사회복지사업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임시 및 일일종사자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시설관리 위탁 및 인력공급업과 같이 주로 저부가가치 단순직종으로 운영된다.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업, 연구개발업, 전문기술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순증가했으나, 이러한 업종의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사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영역의 단순 미숙련 일자리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고용 비중은 낮더라도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경제 부문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신규 창업사업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사업체의 생존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KLI**

<참고문헌>

권혜자조우현(2006),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 논집』 29(1).

김혜원(2004),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pp.13 ~ 51.

Davis, S., J. Haltiwanger, S. Schuch(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MIT Press, pp.57 ~ 82.